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 우호적인 기준선과 더 큰 리스크
- 해외 제조업 강세가 미국 성장과 인플레이를 끌어 올릴까?
- 미 인플레이 우려는 과장된 것일까? 인플레이, 미성장, 장기 금리 전망은?

[미국 경제]

- Bloomberg: “인플레이 전망을 보면 금리 인상 위험도 있다”
- Bloomberg: 고금리로 연준 금리 인하 시기 재설정한다

[미국 금융]

- Bloomberg: 강한 인플레이 데이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기회’
- WSJ: 코스트코에서 산 금, 팔기에는 비용과 시간 많이 든다

[미국 생활]

- CNBC: LA 시정부, 홈리스 예측과 지원에 AI 시범 실시
- MSN: 미 소셜시큐리티 연금 내년에 2.6% 상승

[주택]

- WSJ: 주택 모기지 7% 상회... 주택 시장은 슬럼프

[에너지]

- Bloomberg: 원유 약간 상승... 이란 언론이 이스라엘 공격 경시

[기후]

- Bloomberg: 바이든, 20억불 규모 녹색 세액공제 대상 기업 공개

[중국 경제]

- WSJ: ‘값싼 중국산 철강’의 과도한 수출에 세계가 반발
- WSJ: 1분기 중국 항공 여행객 수 급증... 억눌렸던 여행 수요 분출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Bloomberg: Amex 수입 급증 ... ‘프리미엄 카드 고객’ 늘어난 덕분
- WSJ: Apple, 중국 명령에 “인기 메신저 어플 삭제”
- NYT: Meta, 애플에 ‘스마트 도우미’ 설치 ... 역대급 규모의 AI 도입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골드만삭스 보고서]

Goldman Sachs - Global Views: Friendly Baseline, Greater Risks

우호적인 기준선과 더 큰 리스크

- 예상보다 강한 3월 미 소비자 가격 지수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분기별 연준 금리 인하 시점을 7월 31일에서 그 이후로 미뤘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여전히 디스인플레이션을 전망하고 있다.

- 그 이유는 최근의 인플레이션 수치, 고착화된 인플레 기대, 지속적인 노동 시장 균형 등의 변수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US Economics Analyst: Will Foreign Manufacturing Strength Boost US Growth and Inflation?

해외 제조업 강세가 미국 성장과 인플레를 끌어 올릴까?

- 글로벌 제조 활동이 상승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러한 현상은 미국의 성장을 끌어올린다. 그런데 인플레이션 효과는 간단하지 않다.
- 올해의 경우 이민이 늘어나 노동 공급의 계속된 순풍으로 임금 상승이나 인플레 파급 효과에 따른 리스크가 정상보다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골드만삭스 보고서

Are inflation fears overblown? The outlook for inflation, US growth, and long-term rates

미 인플레 우려는 과장된 것일까? 인플레, 미성장, 장기 금리 전망은?

- 골드만삭스의 미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David Mericle (과거 KOCHAM 연사로 초청됨)는 과열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과장된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그는 미국의 경제 성장 전망이 여전히 강한지도 오디오로 설명한다.

골드만삭스 Audio

[미국 경제]

Bloomberg: Inflation Expectations Flag Fed Hike Risk, Piper Sandler Says

“인플레 전망을 보면 금리 인상 위험도 있다”

- Piper Sandler의 글로벌 자산 배분 책임자인 Benson Durham은 최근 수개월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연준 목표치 2%를 넘는 수치를 분석해 보면 향후에 물가 압력이 계속될 것으로 시사된다고 말했다.
- 연준 관리들 입장에서의 위험성은, 이같은 인플레 기대가 실질 인플레를 계속 상승시킬 경우 연준이 대응 조치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그는 “아직 장기 인플레 기대가 그런 수준으로 달성되지 않았지만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re Rates High Enough? Fed Resets Clock on Interest-Rate Cuts

고금리로 연준 금리 인하 시기 재설정한다

- 계속해서 실망스러운 인플레이션 압력 지표들 때문에 연준은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재조정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의 경로를 재평가하고 있다.
- 파월 의장은 이번 주에 금리 인하에 생각보다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해 올해 두 번 이상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부는 올해 금리 인하가 없을지 모른다고 우려한다.
- 대부분의 연준 관리들은 금리 수준이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일부 연준 관리들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With Hot Inflation Data, Wealth Managers See Second Chances for Investors

강한 인플레이션 데이터, 투자자들에게 오히려 '기회'

- 일부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와 달리 계속된 물가 상승으로 연준이 올해 금리를 인하할지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연준 조치를 기다리면서 포트폴리오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다고 블룸버그 뉴스가 인터뷰한 재정 어드바이저들은 조언한다.
- 국채를 살 수 있는 적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작년 하반기에 국채 수익률이 떨어진 이유는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물가 지표에 따르면 국채 수익률은 지난주의 최고점에 거의 근접한 상태로 되돌아왔다는 것.
- 포트폴리오에서 매그니피센트 7개 기술주에 과대 비중을 두었을 경우 채권 비중을 낮추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 현재 장기 국채는 주식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 10년물 만기 국채 수익률이 S&P 500보다 수익률이 높아졌다.
- 주택 구매를 기다리는 이들이 임대료 인하에서 혜택을 본다는 것은 1) 저축을 더 할 수 있고 2) 더 큰 주택 보증금을 준비할 수 있고 3) 앞으로는 모기지 비용이 낮아진다는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Bloomberg 기사

WSJ: The Headache at the End of the Costco Gold Rush

코스트코에서 산 금, 팔기에는 비용과 시간 많이 든다

- 코스트코 이용자들은 매달 2억 달러의 금괴를 구입한다고 웰스파고는 밝혔다.

- 이들은 물가 상승과 경제적인 재난으로부터 재정을 보호받기 위해 귀금속에 관심이 있는 이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금을 다시 판매하려 할 때는 금이 쉬운 유동성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 코스트코는 금을 되사거나 환불해 주지 않는다. 금은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시장 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으로만 온라인이나 매장 딜러를 통해 거래된다.

WSJ 기사

[미국 생활]**CNBC: Los Angeles is using AI in a pilot program to try to predict homelessness and allocate aid****LA 시정부, 홈리스 예측과 지원에 AI 시범 실시**

- LA는 AI의 예측 서비스를 통해 홈리스 가능성이 높은 개인과 가족들을 확인하고 이들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지난 2021년에 실시된 이른바 홈리스 방지 파일럿 프로그램은 홈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았던 8백명의 개인과 가구를 지원했고, 참가자의 86%가 해당 프로그램의 혜택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됐다.
- 개인과 가구는 4천불에서 8천불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CNBC 기사

MSN: Social Security: What are the COLA estimates for 2025?**미 소셜시큐리티 연금 내년에 2.6% 상승**

- 소셜시큐리티가 물가 상승을 감안해서 올해는 3.2% 상승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수년간 인플레이션 폭을 감안했을 때 충분한 상승률이 아니라는 것.
- 내년에는 생활비조정(COLA)에 따라 2.6% 소셜시큐리티가 상승할 것이라고 노인 권익 단체인 TSCL는 전망했다.

MSN 기사

[주택]**WSJ: Housing Market Slumps as Mortgage Rates Top 7%****주택 모기지 7% 상회... 주택 시장은 슬럼프**

- 모기지율이 7%를 상회했다. 3월 주택 판매는 지난 1년여 동안 월간 단위로 가장 크게 떨어졌다. 주택 시장에 압박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어제 목요일 Freddie Mac에 따르면 30년 고정모기지 평균치가 0.25% 오른 7.1%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23년 하반기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주간 단위로는 지난 1년간 최고 상승폭이다.

- 이에 따라 3월 기존 주택 판매건수는 2월에 비해 4.3% 줄었다.

WSJ 기사

[에너지]

Bloomberg: Oil's \$3 Gain Evaporates as Iranian Media Downplay Israel Strike

원유 약간 상승... 이란 언론이 이스라엘 공격 경시

- 이란 언론이 이스라엘 공격을 경시하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원유에 대한 지정학적인 리스크 프리미엄이 줄어들면서 원유 가격의 큰 폭 상승에서 소폭 상승으로 줄었다.
- 글로벌 벤치마크 브렌트유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으로 인한 지정학적 갈등 증폭 때문에 오일 공급에 우려가 촉발되어 3달러 이상 상승한 90달러를 상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란 언론들은 이스라엘 공격이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이란 군사당국은 로이터 통신에게 즉각적인 군사대응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달에는 가격 급등에 대비하는 옵션 매수가 급증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기후]

Bloomberg: Biden to Unveil Winners of Some \$2 Billion in Green Tax Credits

바이든, 20억불 규모 녹색 세액공제 대상 기업 공개

- 오늘 금요일 바이든 행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배터리 제조사 Novonix, 전 기차 충전기 제조사 Wallbox, 그리고 희토류 소재 기업 MP Materials Corp.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받는 35개 업체 중 일부로 밝혀졌다.
- 에너지부가 발표한 세액공제는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 감축법을 통해 1백억 달러를 받은, 청정에너지 제조업체를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 해당 프로그램은 청정에너지 생산을 가속화하고 산업 시설에서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기술들에 대해 최대 30%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Bloomberg 기사

[중국 경제]

WSJ: Flood of Cheap Chinese Steel Fuels Global Backlash

‘값싼 중국산 철강’의 과도한 수출에 세계가 반발

- 중국의 부동산 경기침체로 철강업체들이 엄청난 양의 철강을 팔지 못하고 있다. 이제 업체들은 헐값에 해외로 철강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반발을 일으키는 중이다.
- 수요일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산 철강 수입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미국과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값싼 중국 수출에 대한 대규모 반발의 일환이다.
- 지난 1년 동안 중국의 철강 수출은 33% 증가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까지 1년 동안 중국은 9만5천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이는 2022년 전체 철강 소비량 추정치를 초과하는 양이다.

WSJ 기사

WSJ: China's Air Passenger Numbers Surge in First Quarter, Helped by Pent-Up Demand

1분기 중국 항공 여행객 수 급증... 억눌렸던 여행 수요 분출

- 연초에 중국 항공 여행객 수가 급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제한 조치로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정부의 해외여행 활성화 정책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
- 화요일 중국민공총국은 중국 항공기 승객 수가 전년 동기 38% 증가한, 1억8천만 명으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10% 증가한 것.
- 국내 여행 노선의 승객 수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 1분기보다 14% 증가한 1억6천만 명을 기록했다. 국제노선 승객 수는 2019년의 78% 수준으로 회복했다.
- 이는 2월의 춘절 연휴 동안 여행이 다시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간의 연휴 기간 중국인 관광객은 2019년 연휴 기간보다 19% 증가한 4억7천4백만 명의 국내 여행객 수를 기록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Bloomberg: Amex Revenue Jumps as Users Flock to Pricy Premium Cards

Amex 수입 급증 ... ‘프리미엄 카드 고객’ 늘어난 덕분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American Express Co.)가 올해 3개월 동안 예상치를 넘는 매출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객들이 프리미엄 신용 카드 서비스에 몰려 들었기 때문이다.
- 뉴욕에 소재한 해당 기업은, 금요일 1분기 매출이 11% 증가한 1백58억 달러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블룸버그 집계 애널리스트 예상치 평균인 1백57억7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 이에 따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연간 매출이 2023년 대비 11%까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 CEO Steve Squeri는 “우리는 계속해서 고소비, 고신용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Bloomberg 기사

WSJ: China Orders Apple to Remove Popular Messaging Apps Apple, 중국 명령에 “인기 메신저 어플 삭제”

- 중국이 애플에게 가장 인기 있는 채팅 메시지를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 금요일 Meta Platform의 WhatsApp과 Threads, 메시징 플랫폼 Signal과 Telegram이 중국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 애플은 국가 보안을 위해 특정 어플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언급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다.
- 애플 대변인은 “우리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의 법률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WSJ 기사

NYT: Meta, in Its Biggest A.I. Push, Places Smart Assistants Across Its Apps Meta, 어플에 ‘스마트 어시스턴트’ 설치 ... 역대급 규모의 AI 도입

- 목요일 메타가 전체 어플에 AI 기반 스마트 어시스턴트의 새로운 버전을 도입한다. 대상 어플에는 인스타그램, 왓츠앱, 메신저, 그리고 페이스북 등이 포함된다.
- AI 소프트웨어는 뉴스피드, 검색창, 채팅 등 거의 모든 부분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토요일 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어떤 콘서트가 열리는지, 뉴욕에서 비건 엔칠라다를 먹기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인지 등, 작업을 완료하고 정보를 얻는 모든 부분에서 메타의 AI를 활용하게 될 것이다.
- 메타의 AI는 글을 쓰고, 대화하고,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기업의 가장 최신 언어 모델인 LLaMA 3을 기반으로 한다.
- 책임자 마크 저커버그는 “LLaMA 3를 통해 메타의 AI는 가장 유능한 무료 어시스턴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NYT 기사

美연준위원들 매파 발언에 美 국채 금리↑...2년물 4.99%로

애틀랜타 총재 "연말까지 금리 내릴 상황 아냐"...뉴욕 총재 "필요시 인상"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구성원들의 발언이 이어지면서 18일(현지시간) 미 국채 금리가 상승했다.

이날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웍에 따르면 통화정책에 민감한 2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은 이날 미 증시 마감 무렵 4.99%로, 전날 같은 시간 대비 6bp(1bp=0.01%포인트) 오르며 5%선을 위협했다.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도 같은 시간 4.64%로 전날 뉴욕증시 마감 무렵 대비 6bp 상승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ccsend.com